

일본어는 우리 한글과 달라서 영어 등 외국어를 원래 발음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본어식 발음으로 영어같은 것을 말하면 알아 듣기 어렵다. 알아 듣기 어려운 일본어식 영어를 쓰면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느라고 애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외

일본에는 외국어를 많이 익히려는 토양이 있었다. 명치유신 전 수백년동안 쇠국정책이 퍼졌을 때는 일본인은 외국인과 나가자키(長崎)를 창구로 해서 통역을 거쳐서만 접촉이 가능했다. 그러나 도쿠가와(德川)막부 3백년의 쇠국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난학(蘭學 : 화란의 학문)이 보급됐고 그를 통해 의학 등 과학기술이 도입, 연구됐다.

명치유신 얼마 전부터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배우려면 양학(洋學 : 영어로 된 학문)을 해야한다 해서 양학열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난학에서 양학으로 돌아서서 일세의 계몽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 오늘의 게이오(慶應)대학을 일으킨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라는 사람이었다.

### 쇠국의 문 과감히 허물어

그는 서양 과학사와 일본 과학사를 연결하는 「문명론지 개략」이라는 베스

## 日本 見聞記 <Ⅲ>

명치유신 전 수백년 동안 쇠국정책을 펴온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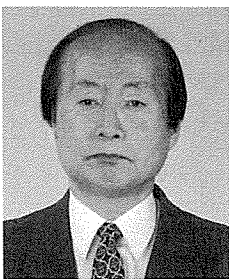
그러나 양학(洋學)에 눈을 뜬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쇠국의 문을 허물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 활용하게 되었다.

일본은 외국인 교사를 각료급 월급으로 우대하면서 일본 땅에 과학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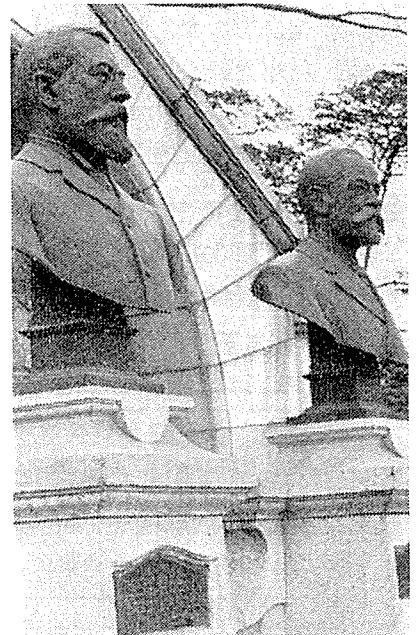
국어에 약하나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 영어회화에 능통한 과학기술자가 썩 많았고 몇개국어를 읽는다는 과학자를 여러명 만났다.

언젠가 주일 한국대사관의 어느 참사관에게 우리 외무부직원 영어능력과 일본 외무성직원 영어능력은 어느 쪽이 낫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참사관은 서슴지 않고 일본 외무성직원의 영어능력이 낫다고 대답했다.

내가 접촉한 일본 과학기술자들중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 서투르나마 만날 때 우리 말로 인사를 건네으며 한글이 쉽지는 않은 언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李鍾秀  
(기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 일본인에게 과학정신의 본질을 가르친 독일인 의사 베르츠(左)의 흉상과 오른쪽은 20년간 도쿄대학에 재직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스크리버의 흉상

트셀러를 펴낸 뛰어난 서양통이었다. 1875년(명치8년) 6권으로 간행된 그 책이 일본인에게 미친 영향은 짐작도 못할만큼 큰 것이었다. 쇄국의 문을 허물고 세계로 눈을 돌렸을 때 일본의 명치 정부는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통감했다.

그러나 쓸모있는 사람이, 즉 과학기술자가 없었다. 신생 일본에는 후쿠자와 같은 식견과 포부, 그리고 실행력을 갖춘 지도자가 많이 있었다. 그들은 쓸모있는 과학기술자들을 외국에서 불러 쓰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외인교사 또는 고용외인교사가 다수 영입되어 각계에서 활약했다. 그러는 한편 유학생을 구미 각국에 파견했다. 어떤 일본인은 외인교사를 <산 기계(器械)>라고 부르면서 들여오려면 아주 우수한 기계를 들여와 최대한으로 써먹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외국인교사 각료급 우대

우리는 일본 사람을 섬나라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소견머리없는 도국근성에 젖은 소인으로 보기 쉬운데 신생 일본에는 배포 큰 사람들도 많았다. 외인교사를 「산 기계」로 본 견해의 타당성여부는 따질 것 없고 일본인들이 파격적인 대우로 외인교사들을 불러다가 각계에서 충분히 활약하도록 한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명치 초년 정부직제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총리대신에 해당하는 관직을 다조(太政)대신, 부총리급을 소(左右)대신이라고 했다. 다조대신의 월급이 8백원, 소대신의 월급이 6백원일 때 소대신과 같은 월급을 받은 외인교사가 여러 명이 있었고 최하가 1백50원 정도였다고

한다. 소학교교원 월급이 2~5원이었을 때인 만큼 그것이 얼마나 막대한 액수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외인교사들은 월급만 높은 것이 아니라 권한도 막강했다. 독일서 부른 물러라는 의사는 임금의 시의였을 뿐 아니라 문부(文部)대신 바로 아래자리에 앉아 모든 일본 의사들을 턱으로 부리기도 했다.

그밖에 외인교사라고 하기는 부적당하지만 호카이도(北海道)개척사 고문 케블런도 약 75명의 외국인을 스텝으로 쓰는 가운데 측량, 자원조사, 축산, 전신 등 사업에서 큰 업적을 올렸다. 외인교사들은 주로 신설된 도쿄(東京)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 양성과 함께 스스로 연구의 업적을 올림으로써 제자들에게 연구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월급을 많이 받았기도 했지만 새 나라의 지도자, 새 나라의 학생들의 근면과 열의에 감동되기도 해서 외인교사들은 참으로 열성적으로 활약하여 새 나라 기초다지기에 협조를 크게 해주었다.

### 「과학나무」키우는데 국력 집중

「Boys, be ambitious!」라는 말로 일본 청년의 꿈을 부풀린 삿보로(札幌)농학교의 초대교장 윌리엄 클라크는 미국 매서추세츠주 농과대학장으로 있다가 삿보로로 간 외인교사였다. 일본에 진화론을 소개했고 오모리(大森)조개충을 발견한 미국인 모스박사(생물학자)나 고명했던 독일인 의학자 베르츠박사 등은 도쿄대학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외인



▲ 1877년(명치10년)출범한 도쿄(東京)대학

교사라 할 수 있다.

외인교수가 가장 많았던 메이지(明治) 6~9년에는 총 1백1명(여자 7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베르츠박사는 도쿄대학에 25년간 재직하면서 의학 발전과 제자 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했고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 과학의 본질과 과학정신의 근본을 가르친 사람으로 오래 기억되고 있는 의학자이다.

그는 어떤 강연회에서 “서양에서 은교사들은 과학의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로서 애써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본서는 그들을 과학의 과실을 따서 파는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종자를 뿌리고 그 종자에서 일본의 과학나무가 스스로 자라서 크게 되게 하려 했다.

그 나무는 올바르게 키워질 경우 끊임 없이 새롭고 더욱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오늘날 과학의 성과만을 그들로부터 받아들여려고 하고 있다. 이 최신의 성과만을 그들로부터 이어받는 것만을 만족하고 그 성과를 가져다준 정신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이 개탄의 소리는 여러 일본 과학자들에 의해 갖가지 서적에 소개됨으로써 오늘도 일본 과학기술계를 위해 경종이 되고 있다. 67